時 論

이제는 노벨의학상을 기다린다

홍 을 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사무처장

2002년 부시가 방한했을 때 한반도의 상황은 그의 호전적인 '악의 축' 운운 발언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그래서 세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의 북한 압박 전략에 대응하여 미국과 소련의 대화를 상기시키며 자기 페이스로 대화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데 성공했다. 부시는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필자는 그것은 노벨평화상이 지니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의 희망과 열망이 그 상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엄청난 무게로 부시의 기를 꺾어 대화의 기선을 제압하게 한 것이다.

그 상의 수상 과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왈가왈부하는 말들도 많았고 수상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소인배들이 많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의 세계 정세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노르웨이 국회의 5인위원회가 가장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일방적 한반도 전략에 대한 양식있는 서유럽인들과, 패권주의적인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대하는 세계의 평화애호가들의 바램이 이 상에 고스란이 투영되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그의 발언은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있다.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미 팔십이 넘은 그를 대북 특사로 파견하자는 의견들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도 노벨평화상의 위력이다.

노벨상은 그 상을 받은 사람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상을 받은 사람의 조국에게도 큰 축복이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것도 평화상 부문에서 받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는 평화의 유지이다.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분단국이고 주변 4강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분쟁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의 유지는 그만큼 중요하다. 평화 상태의 유지는 더 나은 생존의 조건과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 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전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켰다. 한 사람의 수상으로 인하여 그 상을 받은 사람의 조국의 평화를 이렇게 큰 세계적 의미로 승화시켰다면 더 이상 큰 축복이 없을 것이다.

노벨상 첫 수상자가 탄생한 것이 1901년이었으니까, 올해로 노벨상의 역사는 꼭 104년이 된다. 필자는 노벨상 중 가장 중요한 두 분야를 꼽으라면 평화상과 의학상이라고 생각한다. 노벨 평화상이 인류의 평화에 공헌했다면, 의학상은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 의학계의 최대의 관심사는 줄기세포이다.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줄기세포 연구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미국 대선의 쟁점 중의 하나도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여부 문제였다. 부시는 생명 윤리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반면 케리는 줄기세포 연구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내세워 두 후보가 팽팽한 정책 홍보전을 펼쳤다. 부시의 승리로 줄기세포 연구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인 서울대의 황우석 교수도 그의 연구 장소로 미국이 아닌 중국 등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다는 보도도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승자인 부시도 암 등 난치병 치료 목적의 줄기 세포 연구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1999년 미국의 암 발생률은 75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여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지금 각국은 암과의 전쟁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일부에선 "미국정부만 하더라도 암 연구에 우주 개발비에 버금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다"고 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완치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지속적인 도전이 없었다면 더 큰 공포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100년간 암 관련 연구에 노벨 의학상이 주어진 것은 무려 4차례나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치병이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 치료법조차 개발되지 않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명체 복제와 인간 유전체 계획도 관심거리다. 이 분야는 의학 연구의 중심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 틀림없다. 그 수상자가 우리나라 학자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에서도 BT(생명공학) 분야를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여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IT(정보 기술)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되었다. BT 부문도 IT의 수준과 상호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IT의 우위성이 BT 부문의 우위성을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다.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서구의 과학 기술과 의학을 도입하여 사용하였지만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의 창조적 사고 능력과 통합적 사고 능력이 IT와 BT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한 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 이제 평화 정착과 정보화 기반의 바탕에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입증할 또 하나의 노벨상이 기대된다. 그것은 인류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평화의 정착으로 나가는 데 기여한 노벨평화상의 수상 다음에 기대되는, 더 나은 삶의 욕구 즉 인류를 질병의 고통과 난치병으로부터 해방되고자하는 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의학상일 것이다. 이제 노벨의학상을 우리나라 학자가 수상할 때가 왔다. 한국인의 우수성을 그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노벨평화상이 가졌던 위력보다 더 큰 힘과 에너지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선인 500명을 우리나라에 보낸 옛 이야기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인류의 생명과 건강의 메카가 될 것이다.

자유기고

'프리즘으로 본 한국' - ⑦도로에서 키스를!

박 석 호
에스팍홀딩 대표

며칠만에 몸이 좀 나은 듯 싶어 바깥 바람을 쐬 보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온지 일주일쯤 지나자 이민간 나라에 가면 통과의례로 보통 거쳐야 하는 토질병(?)에 드디어 걸리고 말았는데 동남아 지역은 말라리아나 설사병. 선진국에 가면 토종감기가 보통으로 난 한국의 독감에 걸리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방송에서도 독감이 유행한다는 뉴스도 없었지만 나는 지독히 앓아누었고, 더구나 서울의 공기는 오염이 심해 숨쉬기가 곤란했다. 시드니 같으면 2~3일 와이셔츠를 입고 다녀도 셔츠 목 주위에 거의 때가 묻지 않았지만 서울에 와서는 일단 반나절 외출했다 돌아와도 손목 부분까지 새까만 때가 묻어 있을 정도로 더러운 먼지 투성이의 공기를 들어 마셨으니 독감에 안 걸린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드디어 나의 몸속에 감기균이 들어 왔으니 견딜 재간이 없었다. 더구나 의료 보험이 없어서 병원 치료도 만만치 않고, 당분간 일이 있어서 출근한 것도 아니어서 침대에 꼼짝하지 않고 드러누워 편히 쉬면서 감기가 낫기를 기다렸다.

2주쯤 앓고 나니 드디어 몸도 점점 가뿐해 지고 날씨도 봄기운이 돌기 시작해 활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큰 대로로 나와 천천히 상점의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지나 가는데 길 건너 옷가게에서 가게문을 닫는다며 모든 물건을 50에서 90%까지 세일한다고 마이크를 붙잡고 고래 고래(?) 떠드는 스피커 소리를 듣고 무슨 옷을 세일하나 한 번 구경해 보려고 건널목 신호등에서 파란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20대 젊은 한 쌍이 사람들이 보는 것도 상관 없는지 키스를 해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한국에서도 내가 없는 동안 길에서 이렇게 쭉쭉 댈 정도로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았더니 못 보았다는 듯 정면 신호등 불빛만 파란 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젠장,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성도덕이 땅에 떨어 졌다고 하는 서양의 호주에서도 길에서 젊은 애들이 어쩌다 키스하고 있는 걸 보면 지나가는 노인들이 '더럽게 길에서 키스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너의 집에 가서 해라' 라고 소리 질러대 창피를 주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국에서는 나무라는 사람조차 없으니 호주보다 더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신호가 바뀐 길을 건너는데 두 젊은이는 길을 건너면서도 볼에다 키스를 교하면서 건너가고 있었다.

실제로도 호주에서는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일부 계층이나 이상한 옷차림을 한 히피들이 공원 같은데서 키스하는데, 도덕을 최고로 내세워 교육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일부가 서양의 잘못된 문화와 풍습을 배워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도 도덕적인 면에서 망하긴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집주인과 밖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저씨, 그런것 봐도 못 본체 하세요. 요새 젊은애들이 그런것 나무라면 오히려 덤벼들어 봉변이나 당하니 한국에서 사실려면 내버려 두세요." 라고 대답해 할 말을 잃었다.

그러고 보니 호주 신문에 "한국 젊은이들의 이혼률이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고 하더니 이제는 서양보다 더하군, 서양 문화를 잘못 배워와도 한창 잘못 배워온 거지, 호주에서는 결혼할 때 몸이 순결하지 않으면 신부들이 얼굴에 면사포도 쓰지 못하고 결혼하는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변해도 너무 거꾸로 잘못 변해버린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시 생각해 봐야했다.

독/자/기/고

고향생각 장 날

조 귀 순 (가산면 우금리 출생, 수필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람들과 함께 백운계곡에 갔다. 지난여름엔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싱그럽더니 곱게 물든 단풍은 한층 더 운치가 있었다. 팔도강산 어딜 가나 물 맑고 산 좋고 인심 좋다 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나는 너스레를 떨었다. 자화자찬이 좀 심하다고는 했지만 모두가 자연경관에 푹 반했다.

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면서도 돌아올 때는 왠지 아쉬웠다. 어느새 이동면을 뒤로하고 일동면을 지났는가 싶은데 신작로를 달리다보니 포천시내에 가까이 다다랐다. 그즈음 문득 옛 장날 생각이 났다. 5일마다 서는 시골 장. 4일은 솔모루(송우리)장이고 5일은 포천장날이다. 솔모루장 보다 커서 볼게 많다고 부모님께서 다니시던 포천장은 요즘도 설까?

어머니는 장에 한번 가려면 장꺼리를 장만하느라 이것저것 모았다. 아주 어렸을 적 닭을 키울 때는 달걀도 모아 열개 한 줄을 짚으로 엮어놓고, 하루 종일 뜯어온 산나물을 삶아서 함께 갖고 나가셨다. 채소를 솎아 밤새 단을 묶고 미끈하게 잘생긴 오이 반접을 골라 담았다. 여름내 땀 흘려 거둬들인 곡식을 팔아 학비를 마련해주시고, 이따금씩 콩 한말, 팥 닷 되씩을 이고 나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셨다. 그런 날은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구밖만 내다보며 내내 어머니를 기다렸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보다 어머니 머리위에 장보따리를 더 기다렸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새벽 우(牛)시장엘 자주 가셨다. 소금(金)을 수시로 알아놓아야 제때에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단다. 이십 오리 길을 걸어가려면 먼동이 트기도 전에 나가셨는데 신읍에서 가채리로 옮긴 뒤에는 더 서두르셨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신발을 사주시겠다고 하여 따라 나섰다. 뒷곁의 서너 그루의 살구나무에서 잘 익은 것만 골라 담은 살구 한 자루를 지고 가셨다. 아버지는 장터귀퉁이에 자루를 내려놓고는 잠깐만 보고 있으라고 하시더니 어디론가 가셨다. 사람들은 어린 것이 뭘 팔러 나왔냐고, 얼마냐고 물으며 수군거렸다. 어린마음이지만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도망치고 싶었다. 따라 나온 것을 후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다.

얼마 후 아버지 뒤로 어느 아주머니가 같이 오시더니 살구 자루를 이고 갔다.

"수년간 장엘 다니면서 신세진 아줌니다. 별건 아니다만…."

아버지의 말씀은 새겨듣지도 않고 이제 고무신이 아닌 운동화를 얻어 신을 욕심에 가슴이 부풀었다. 우시장엔 안가도 된다 하셨으니 신발가게만 가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냥 지나치기엔 섭섭하셨던지, 파장이긴 하지만 잠깐 들렸다 가자신다. 그곳에 가니 아저씨들이 '늦었네그려. 대포라도 한잔 해야지' 하며 자꾸만 아버지의 소매 자락을 잡아당겼다.

"우리 꼬맹이 신발 사 신겨야 하네."

하면서도 아버지는 매몰차게 잡아떼지 못하고 끌려가셨다. 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포 집 마루에 걸터앉으셨다.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었다. '이러다 신발도 못사는 게 아닐까, 차라리 어머니가 순순히 사 준신다고 했던 색동고무신이나 받을 걸 그랬나.' 조바심이 났지만 자상하기보다는 무서웠던 아버지라 말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니 아부지 술이라든 지고는 못가도 먹고는 간단 양반인데 그 술 다 뿌리치구 오신 것 보니 막둥이가 다르긴 다른가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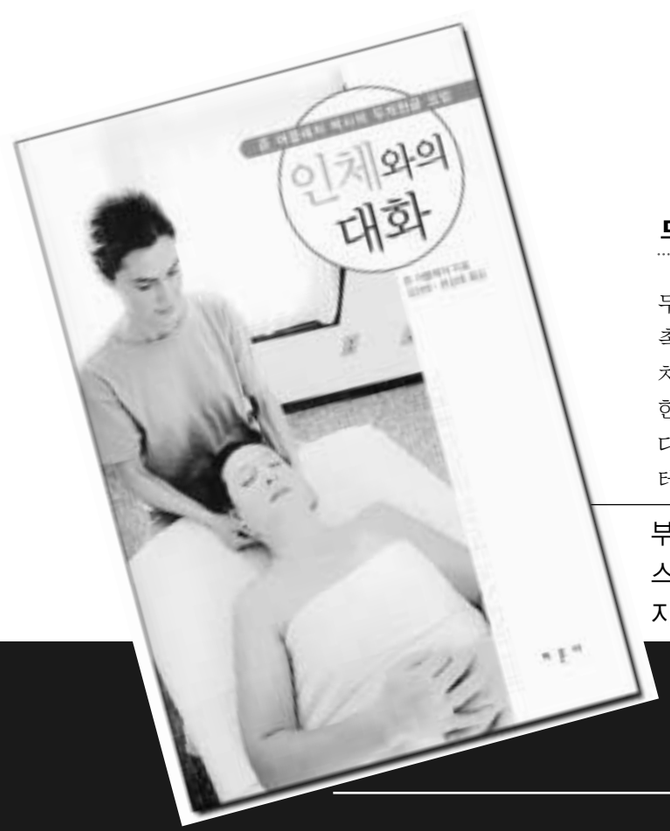
빨간색 운동화를 사들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신기한 듯 말씀하셨던 장날의 기억이 떠올라 함께 온 이들에게 말했다.

"오늘이 마침 포천 장날인데 장구경이나 하고 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한내천 군내다리 둑방으로 올라가니 정말 장터가 있다. 해가 설핏하니 서쪽으로 기울고 있는 때라 설까, 생각했던 것 보다 조촐하였다. 할머니 앞의 무더기 무더기 놓인 고사리, 취나물, 그리고 검정콩… 몇 가지를 사들고 차에 올랐다. 왁자지껄 유쾌한 웃음소리 뒤로 내내 가슴이 싸아한 건 왜일까.

CST 개강 안내

손으로 아름다움을 이루는 세상
CranIo-Sacral-Therapy



CST요법이란,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요법으로서
Beauty&Health Care의 최상의 시스템입니다.

두개골 요법이란,
두개골 요법을 통해 스틸포인트(still point)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세요. 스틸포인트는 뇌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하는 신비로움입니다. 손의 감미로운 접촉을 통해 유도되는 스틸포인트는 인체의 가장 깊은 뇌 속에서 우러나는 고요함이요, 건강을 향해 힘차게 노력하는 자기치료 능력의 배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체의 모든 생리작용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뇌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까지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건강은 몸의 건강이요 마음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맹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체의학으로 CST는 떠오를 것입니다. 원인불명의 통증신드롬이나 질환의 원인을 설명하고 검사와 함께 그 효능 효과까지 제시해 줍니다. 이미 의료전문인들과 카이로프락틱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안마요법사, 신체요법사 그리고 피부관리사, 심지어 일반인들에게 의해서도 매우 섬세하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테크닉입니다.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두개골 요법을 탐구하십시오.

부드러운 손의 감촉과 예민한 촉진력, 열린 마음의 조화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신비롭고 그로테스크한 세계를 보여줄 것이며 놀라움 더불어 스틸포인트의 세계로 순식간에 빨려들 것 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학문을 쉽게 풀어가는 김선애 선생님의 열정적인 이론 강의와 동시에 임상체험까지 직접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몸에 배인 CST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 Dr.Upledger가 저술한 두개천골요법을 번역 출판한
김선애 님을 모시고 CST의 세계로 여행할 것입니다.